



丙戌元旦에

김진동
예총 포천지부장

한 卞生을 送舊迎新하며 가는 해를 보내고 오는해를 맞았어도 지는 해가 永眠하지도 않았었고 새아침이 밝아오지 않은 해도 없었던만 公然히 人間들 만이 무슨 큰일이 생길것만 같이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게 그냥 그렇게 있는 自然에게 멋쩍고 부끄럽기 까지하다 하나 어찌라 오랜 慣習처럼 뜬배어 日常처럼 되어버린걸 누구나 흐르는 물을 되돌릴수 없는 哲理같이 느끼는 이 現狀을 可憐하다하겠는가

有難했던 해는 빨리 보내버리고 싶고 無難했던해는 잡아두고 싶었지만 이것도 人間으로는 어쩔수 없는 神의 靄이기에 두손 놓을 수밖에 없는 事變이고보면 더더욱 能力的 限界에 애달플 수밖에...

하지만 希望을 갖는 다는건 絶望하기보다는 靑진 來日을 約束 받는 것 만큼 보람있는 일이기도 勇氣와 意志가 생기는 것이어서 設使 자기의 바라던 結果가 없더라도 假令만은 거기에 두고자함을 누가 탓하랴 어찌면 本人도 乙酉年은 빨리 보내버리고 싶은 해였고 丙戌이 빨리 오기를 願해보는 裏面이 있음은 그대로 幸여나 하는 俗心이 있음이어서 속스럽지만 뭔가 새로운 是圖로 이 社會를 爲한 내 靄를 해보고자 하는 老心이 가져보는 愼일까?

해가 쌓일수록 이 社會에 多大한 負債는 늘어난 가고 成熟한 만큼 그걸 느끼는 感覺은 進해만 가는데 寸刻을 다투는 秒針소리만이 寂寞에 쌓여 平安을 渴求하는 내 靈魂을 깨운다

"丙戌이 왔으니 일어나자고 그래서 내 所任을 다하라"고 늘 그랬듯이 使命이 있는 곳에서 뒷걸음치지 않았던 지난날처럼 새로운 해를 품으려는 夢 未무새를 고치는 閑한 閑해 앞에서 이젠 가족밖에 없는 영당이에 一鞭을 加 해본다



살기 좋은 고장 만들기 앞장

이만구
포천문화원장

어느덧 올유년 한 해도 저물고 희망찬 병술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문화가족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이 충만 하시고 아울러 뜻하시는 모든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는 축복의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또한 포천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해 우리문화원에서 육성 지원한 포천종교 "포천메나리"가 제12회 전국소년 민속예술제에서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여 영예의 대상과 "틀뚝이 동해 놀이"가 경기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반월문화제를 비롯 좋은책읽기운동, 전국한시백일장, 향토문화재탐방 및 문화체험사업, 향토사연구사업, 문화학교의 활발한 운영, 포천문화사랑을 비롯한 다양한 간행물 발간 등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향토문화의 이해도를 제고 하는 한편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소양 및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된 각종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

새해에도 지역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향토사 연구를 통한 사료의 체계화, 지역문화행사 및 다양한 교육활동 등 폭넓은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문화의 향기와 뿌리가 있는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지도층인사 및 포천문화가족 여러분의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특히 포천신문에서도 문화 예술 및 교양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지면을 할애하시어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천시민을 위한 충실한 대변은 물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향토색 짙은 생활감 넘치는 양질의 정보제공등 다양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전국 최고의 지역신문으로 우뚝 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문화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들시고 건강과 행운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의 블루오션 (Blue Ocean)

최규필
포천시교원연합회장

병술년(丙戌年)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교육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과 축복의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는, 흔히 '지식기반 사회'라고 일컫는 미래사회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계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 지식 사회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따라서 지식의 생성 소비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국경의 의미가 희박해져 가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교육의 구조로는 살아 남을 수가 없다 하겠습니까.

주 5일 수업제에 대비하여 월 2회 토요 휴업일을 실시하고 교원평가를 위한 시범학교가 운영되는 등 교육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시대와 상응하여 요구하는 다양한 가치요소를 탐색하고 이를 조율해 자신만의 블루오션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습니까.

"주니어 블루오션 전략"을 만들어 학생들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혁신을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습니다. 학교가 단일한 기준을 갖고 학생들을 레드오션으로 몰아넣을 때 한국의 미래는 밝지 않다고 봅니다. 차체, 이제라도 학생들의 가치혁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블루오션 교육시스템 도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우리가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초·중등 교육에서 실천 위주의 인성 교육을 확고히 해야 하겠습니까. 둘째, 근검 절약 정신을 학생들에게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창의력의 개발입니다. 끝으로, 철저한 학생 중심 교육과 열린 학습 사회를 구현하자는 것입니다. 미래를 살아갈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자기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미래 학자들은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은 여러 차례 직업을 바꾸어야 하는 사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배운 지식으로 평생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열린 교육 사회 '에듀토피아'의 실현을 교육 개혁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하나로 뭉쳐 이러한 교육 개혁을 기필코 성공시켜 가야 하겠습니까.

새해에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비상하는 한해

강대원
경기도예절교육원장

찬란 학이 비상하는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포천신문 독자 여러분 가정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힘들었지만 보람을 일군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총명의 고장 포천에서 품위 있는 예절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기에 더욱 값진 한해였습니다.

예(禮)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이며 존중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禮)를 통해 사람은 성숙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들이 사는 아름다운 세상은 바로 참된 예(禮)를 찾을 때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예(禮)는 물처럼 겸손과 순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상선약수(上善若水)는 가장 좋은 것, 가장 훌륭한 것은 물과 같은 것으로 가장 이상적인 삶은 물의 덕성을 본받아 도를 이루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새해 아침에 물의 본성을 통해 한해의 다짐을 해 봅니다.

물은 순리대로 흐릅니다. 평지는 천천히, 장애물은 돌아서, 웅덩이를 만나면 쉬었다가 흐를망정 역류는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의 흐름처럼 순리대로 욕심 없이 살아간다면 올 한해도 가정과 이웃과 나라와 세계가 평온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물은 모양이 바뀔망정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근 모양으로, 네모 그릇에 담으면 네모 모양으로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꾸니 모든 사람들이 환경에 순응하고 또한, 환경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 맞추어 살아간다면 각기 다른 사람들이 무지개처럼 멋진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물의 본성이 고여 있을 때 보다 흐를 때 큰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새해에는 늘 웃는 모습으로 덕담하고 칭찬하며 예(禮)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연(自然)과 인간(人間) 그리고 예(禮)가 함께 하는 예절교육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경기도예절교육원은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물론 사계절 야생화가 피는 '야외 전통예절 체험학습장'을 조성하였으며, 산정호수-명성산-백운계곡 등과 연계한 관광벨트화로 학생과 교원은 물론 경기 도민 모두에게 조상들의 습기와 예(禮)를 익히고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한편 포천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 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누고자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 아침을 맞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르침을 마음깊이 새겨 모두가 새로운 희망으로 비상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힘과 지혜 모아 미래 준비를

이중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천시협의회장

병술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통일을 긴 여사의 과정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고개 마루턱에 올라온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단과 냉전의 시대가 통일과 평화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북한의 문제는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평화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북한 지역을 관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조국의 평화통일 기류가 한층 진일보하여 그동안 국제사회의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통일의 그 날을 위해 병술년에는 더욱 단합하고 단결하여 분열되는 국민이 아니라 하나로 굳게 뭉쳐 국론통일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그리하여 통일된 금수강산 우리 강토를 후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합시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많은 희생과 목숨을 걸고 지켜온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민의 정부선택권 등의 국민의 권리에 도전하려는 세력에 대한 경계입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이 꼭 이루어야 할 명제입니다. 그러나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산독재, 유신독재, 군사독재와 싸워 지켜온 자유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의 출발점입니다. 특히, 남북간 평화정착 실현이 눈앞에 있는 시점에서 우리 지역은 지역 역량이 축적되어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전환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미래는 무궁무진한 발전의 연속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2006년에는 모두가 꿈과 희망을 갖고 노력하여, 그간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갈등과 반목보다는 상생과 화합, 국민 대통합의 한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자유를 위해 통일은 유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을 위해 자유를 유보 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 가는 뜻깊은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호국의 투혼 했던 뜻깊은 한해

이광호
포천시재향군인회

친애하는 4만5천여 포천시 향군회원 여러분 대망의 丙戌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瑞光 가득한 새해 새아침을 맞이하여 회원동지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복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동안 특정한 국가안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자의 직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온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는 우국충정의 일념으로 전회원, 전조직이 애국, 호국의 투혼을 불태웠던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특히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고, 적을 적이라 하지 않으며, 안보 빗장을 열어야 한다는 사회 저변의 굴곡된 시각을 바로잡기 위해 펼쳐던 수많은 안보내용 활동은 이 나라 안위를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위안이 되고 향군에 대한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의 요체인 국가보안법을 수호했으며, 한·미 동맹의 상징인 맥아더 장군 동상을 지켜냈으며, 향군에 대한 외해책동을 차단하고, 친북좌경세력의 경거망동에 쉼기를 박았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11일 오산·평택 K-55비행장 정문앞에서 결의한 한미동맹강화 및 주한 미군 철수 반대 켈기대회에 우리 포천향군 여러분도 참석하여 나라의 안보결속을 크게 기여한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맞이한 2006년도 상수보다 변수가 많은 안보상황과 파란과 격동의 시류를 감안할 때 우리 향군의 전도에 많은 난제와 시련이 닥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 포천향군회원 모두는 이 시대의 향군사를 엮어 가는 주역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내 자신보다 전우와 우리향군 그리고 국가와 포천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대북외해 협력 정책이 부진한 가운데 어려운 경제난과 주한미군철수, 과거사 진상조사, 보안법 폐지 주장 등 국내외적으로도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한해로 기억됩니다.

우리 포천재향군인회 4만 5천여 회원들은 금년에도 衛國戡身精神이 시민들의 마음속에 고귀한 삶의 가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안보의식을 제고시키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랑스러운 애국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나갑시다.

이를 위해 우리 포천시 향군은 組織의 精銳化와 靑壯圖謀와 회원의 福利增進을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동지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신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謹賀新年

전기공사 및 소방설비(전기·기계)전문 공사업은 '고은종합전기'

■전기설비 고장발생시 긴급출동 후 보수작업



최두열
대표이사

- ### 취급 공사
- ▶ 공장
 - ▶ APT
 - ▶ 빌딩
 - ▶ 병원
 - ▶ 상가
 - ▶ 호텔
 - ▶ 가로등
 - ▶ 기타 전기공사
 - ▶ 소방설비공사



공장확장으로 인한 부하설비 증가로 특별 고압 지가용 수전설비 증설 공사 현장

고은종합전기는 오랜 경험과 풍부한 기술력으로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 과학적인 설계와 완벽시공 및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